

Circle of GYMBOREE

2015 no.74

The Worldwide Leader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gram

It's New! All Set!
짐보리 센터의 메이크오버

우리 가족 여행 계획

내 아이 위생 관리

MAGFORMERS
내 아이는 3차원으로 사고한다

이유 있는 아이의 집착,
유형별 대처법

Special Theme

짐보리의
애착육아

Circle of GYMBOREE

2015 no.74

The Worldwide Leader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ogram

It's New! All Set!
짐보리 센터의 메이크오버

우리 가족 여행 계획

내 아이 위생 관리

MAGFORMERS

내 아이는 3차원으로 사고한다

이유 있는 아이의 집착,

유형별 대처법

Special Theme

짐보리의
애착육아

비 늦 방 을 에 비 친
세 상 을 궁 금 해 할 때 면
시 작 하 자

내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택, 짐보리

호기심이 많아진 아이에게 보다 특별한 경험을
주고 싶다면 짐보리를 시작하세요.

40년 놀이 철학과 다이나믹 놀이 시스템, 혁신적인
놀이·음악·아트·맥포머스 프로그램은 물론 짐보리만의
멤버십 혜택이 내 아이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다른 놀이 프로그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
전세계 40여 개국 엄마들이 짐보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The exclusive play

GYMBOREE **PLAY & MUSIC**

CONTENTS

Circle of Gymboree 2015

Special Theme

짐보리가 말하는 애착육아

02 / 애착육아가 해답이다

For Mom & Dad

놀이가 과학이다!

06 / We make Children Happy

10 / 두뇌 발달의 비밀은 놀이에 있다

12 / It's New! All Set! 짐보리 센터의 메이크오버

16 / **Play & Music** 집에서도 짐보리랑 놀자~

18 / **Advice** 내 아이 위생 관리

20 / **Travel** 우리 가족 여행 계획

24 / **Style** 패밀리룩 어드바이스

28 / **Guide** 물놀이의 정석

30 / **Tips** 화보처럼 찍는다!

32 / **Recipe** 아이를 위한 여름철 입맛 회복 레시피

34 / **SOS** 이유 있는 아이의 집착, 유형별 대처법

For Kids

36 / **Gymboree for Kids** 우리 같이 Play Program

40 / **MAGFORMERS** 내 아이는 3차원으로 사고한다

42 / **Education** 영어 말고 중국어?

44 / **Recreation** 신나는 색칠 놀이

Gymboree

46 / **Gymboree Friends**

48 / **Gymboree News**



06



20



36



집보리가 말하는 애착육아 애착육아가 해답이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곧 그 방식인 육아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해답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애착육아에 대해 알아보자.

에디터 류한우

'애착육아'란 무엇인가?

영유아의 애착에 관한 이론은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John Bowlby가 정립했다. 요약하자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 형성에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학설이다. 여기서 '애착'이란 부모와 아이 간에 형성되는 매우 강력한 심리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데, 애착형성에 실패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비는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소아학 전문가인 윌리엄 시어스 William Sears와 마사 시어스 Martha Sears가 '자녀교육서'를 출간하며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애착육아 Attachment Parenting'이다. 애착육아는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 신체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붙어 있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항상 안고 다니기를 권하며, 아이와 반드시 함께 자고, 엄격한 육아법을 피하기를 조언한다.

안정된 애착의 효과

- 아이의 정상적인 두뇌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고도의 정신능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구조 중 하나인 전두엽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다.
-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 안정감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탐색 욕구를 독려하면 아이는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곧 지적 발달을 도와 향후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쌓게 된다.

반대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 호르몬이 뇌를 손상시켜 감정조절과 기억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애착육아

서구에서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용어가 우리 입에 오르내린 것도 서너 해 전의 일이다. 그런데 애착육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우리 전통 육아 방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포대기의 사용은 애착육아의 기본으로 설명한 바와 일치하며, '곤지곤지 잤잤' 등의 전통 놀이는 애착육아에서 말하는 발달 놀이의 일종이기도 하다. 신체 접촉을 늘려 엄마와 아이의 애착에 도움을 주는 동작들은 물론, 돌 이전의 아이가 습득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놀이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애착육아는 오랫동안 당연한 육아법이었다.

'What' 보다 'How'

오늘날 애착육아가 주목 받는 까닭은 맛벌이 부부가 누는 등 부모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넘쳐나는 육아 정보로 인해 오히려 적절한 육아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사회적 현상도 한 몫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애착육아의 기본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줄까?'가 아닌 '내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애착육아의 출발이다. 애착육아는 부모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다. 아이에게 가장 부모의 따뜻한 사랑, 다시 말해 애착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자는 취지임을 유념하자.

애착육아, 시작

애착관계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과 맺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틀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태어나서부터 처음 3년을 강조한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면 아이의 신체, 정서, 인지적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월령별 애착 형성의 기본

신생아~12개월 엄마의 잦은 손길은 애착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따뜻하게 많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

12~24개월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는 자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

24~36개월 "엄마는 항상 너의 옆에 있단다" 하고 일러주는 것이 좋다.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엄마를 상징하는 물건을 선물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짐보리의 애착육아



짐보리 센터의 프로그램과 짐보리가 판매하는 교구들은 모두 애착육아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짐보리 프로그램에서 부모는 자녀의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 부모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한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

짐보리의 놀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정교하게 개발된 교육시스템이다.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부모(혹은 보호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업, 즉 '애착' 형성을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나뉜다. 생후부터 6개월까지, 6~10개월, 10~16개월, 16~22개월, 22~28개월, 28~36개월, 3~5세 등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아이들이 성취할 발달 목표들을 갖는데, 아이들은 특별히 계획된 기구활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감각 탐구, 인과관계 이해, 의사소통 능력, 운동계획 능력과 상상력 등을 익히게 된다.

짐보리는 부모를 아이의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로 여긴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사회화의 기초가 되어 아이의 발달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는 아이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는 아이가 보다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의 탐색 욕구가 높아지면 지적 발달을 도와 향후 학습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폭넓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 수월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놀이와 함께 애착육아!

애착육아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아이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놀이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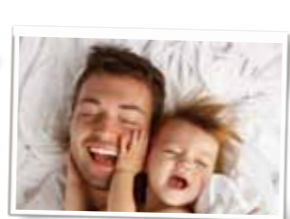
“나 따라 해봐요”

아이의 뇌에서 중요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흉내내기를 통해서이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아이의 뇌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활성화된다.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표정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게 된다.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 눈으로는 그림책을 보고, 귀로는 익숙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듣는다. 이를 통해 아이는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 아이가 글자를 깨우치고 혼자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부모가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는 것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



“간질간질, 어디를 간질여줄까?”

부모와 아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정서, 신체발달을 이워주는 동시에 자신감과 신뢰감, 사회성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놀이를 통해 즐겁게 스킨십 할 수 있는 방법이 간질여타기 놀이. 아이의 신체 부위를 간질여주거나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같은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신체부위를 두드려 주자.



“즐거운 목욕 놀이!”

아이들은 대부분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에 목욕시간을 활용해 놀이하는 것도 좋다. 비누거품을 만들어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몸을 비비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면 놀이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드러운 접촉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럴 수 없는 부모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장맘’을 위한 애착육아

짐보리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도 가정보육이 여의치 않거나,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도 이상적인 애착육아의 묘안으로서 기능한다. 짐보리의 전문 연구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역시 육아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직장맘’들의 마음은 편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럴 수 없는 부모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때 이슈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덕분에 더욱 불안해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애착육아의 성패는 부모의 노력이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금 유념해야겠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려는, 그리고 아이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워킹맘을 위한 건강한 애착형성 TIP


짐보리 교육 연구소에서는 ‘워킹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한다.

“몰래 출근하는 것은 금물, 아이에게 엄마의 일정을 말해주세요.”

대부분의 워킹맘들은 아침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한다. 그래서 아이가 떠날 때 시선을 돌리거나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몰래 출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금물이다. 애착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감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엄마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더욱 매달리게 되는 결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지 않고 부정적 정서가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작별인사를 하고 출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회사에서 언제쯤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도록 하자.

- 


“퇴근 후 아이가 엄마의 1순위가 되어 주세요.”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면 아이부터 안아주자.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린 아이를 집에 들어서자마자 꼭 안아주고, 잘 지냈는지 물어보며, 아이가 씩씩하게 엄마를 기다려줘서 엄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노라 이야기해 주자.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은 다음 아이를 안는 것이 엄마에게는 자연스럽게겠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 아이는 대리 양육자가 잘해주어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엄마가 집에 왔을 때는 우선 아이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집안일보다는 아이와 놀아주세요.”

온종일 기다린 엄마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밀린 집안일에만 신경 쓴다면 자신보다 집안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곧 욕구불만이 되어 쌓이게 된다. 따라서 퇴근 후에 제순위로 해야 할 일은 정리정돈이나 밀린 설거지가 아니라 아이와 신체를 부대끼며 하는 놀이임을 명심해야 한다.



-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작성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작성해보길 권한다. 엄마가 아이에게 꼭 해주어야 하는 것은 엄마만의 영역으로 설정한 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놀이'를 새로운 교육의 분야로 끌어올린 짐보리. 그 뒤에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명감 아래 한국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온 짐보리 놀이 연구소가 있었다.

에디터 김정아 사진 방지은

We make children HAPPY



짐보리 본사 소름에서 짐보리 놀이 연구소 연구원들 시계방향으로 봉혜련 수석 연구원, 장은경 연구원, 박유진 선임 연구원, 김정우 책임 연구원, 정지민 책임 연구원, 김혜련 소장, 김윙희 책임 연구원.





We make children HAPPY



짐보리 역사의 시작

1992년 한국에 짐보리 놀이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미국 짐보리 본사에서 프로그램 전수받고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분석을 시작한다. 그 해 10월, 반포 센트럴 시티 짐보리 직영 센터의 개관과 함께 처음으로 짐보리 프로그램을 한국에 선보인다. 그렇게 한국 짐보리의 역사는 짐보리 놀이 연구소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아이에게 맞게

짐보리는 세계적인 놀이·음악·아트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짐보리에서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글로벌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우리 아이의 각 연령에 적합하게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한국 짐보리 놀이 연구소의 핵심 역할이다.

짐보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 생애 첫 선생님

짐보리 놀이 연구소의 또 다른 역할은 짐보리 교사의 채용과 관리, 교육

철학의 전파와 프로그램 피드백 관리까지다.

짐보리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는 혹독한 연수가 필수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 받는 1차 본사 면접, 발령될 센터의 2차 센터 면접을 거쳐 통과된 선생님들은 비로소 교육의 단계로 진입한다. 전반적인 영유아 발달 및 짐보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 교육과 직접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보는 실습 교육도 받게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사 직영인 서초 센터의 연구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비로소 짐보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개발하는 것도 연구소의 몫. 연차에 맞는 맞춤형 교육인 연차별 이수제와 미니 워크샵 및 정기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교사 역량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 짐보리가 영아 대상의 프로그램부터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짐보리 교사는 아이가 만나는 첫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각인 될 '첫 선생님'을 양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고 짐보리 교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길 강조하고 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가 중심

짐보리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특징. 김혜련 소장은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가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교육 철학 실천의 일환으로 한국 짐보리는 2012년부터 부모 교육 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 분야의 권위 있는 다양한 외부 강사들과 김혜련 소장이 멘토가 되어 진행되는 특강이다. 비정기적 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짐보리만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놀이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 '놀이 치료 센터'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김 소장은 '놀이'만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행이지 않냐고 했다. 아이들은 그만큼 노는 것을 좋아하고 필요로 한다. 짐보리의 교육 프로그램은 의미와 학습을 담은 '놀이'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즐겁게 노는 가운데 두뇌 발달과

성장촉진이 골고루 이루어진다. 짐보리 놀이 연구소 연구원들의 책상에는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다. 짐보리 프로그램의 목적이 짐보동이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것처럼 말이다.

융합적 발명가, 맥포머스 인벤터

맥포머스는 글로벌 짐보리의 허가 하에 한국 짐보리에서 독자적으로 론칭한 교구다. 한국 짐보리가 이를 이용해 개발한 맥포머스 프로그램은 2013년 짐보리 회원 및 맥포머스 교구 구매자들의 맥포머스 학습 프로그램 개발 요청에 힘입어 탄생했다. 역시 한국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맥포머스 인벤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맥포머스 프로그램을 56개월~7세의 취학 전 연령까지 확장시켜 올 봄 새롭게 론칭한 프로그램이다. 맥포머스 인벤터에는 유아 수학 탐구 영역에 실생활의 주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아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고한 결과를 조형물로 구현해 내야 한다. 김 소장은 이 과정에서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키워진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부모와 아이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라고 한다. 현재는 지난 봄학기부터 1년으로 설계한 커리큘럼을 전국 30개 센터에서 우선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세팅 작업 중이다. 1년 후 그 동안의 피드백을 취합해 좀 더 공고히 프로그래밍할 예정이다.



두뇌 발달의 비밀은 놀이에 있다

자연스럽게 내 아이의 신체와 두뇌의 발달을 꾀한다? 대단한 무언가를 필요로 할 것 같지만 그 해답은 다름아닌 '놀이'에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조력과 상상력을 키워간다.

짐보리 프로그램이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디터 류한우 참고자료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김영훈, 이다미디어, '짐보리 부모 교육 특강' 정리자료



영유아의 두뇌 발달과 놀이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유전적인 대물림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아이의 두뇌 역시 연습을 통해 발달한다. 여기서 운동선수의 '연습'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된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몸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머리 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의 두뇌 발달 과정 역시 일종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아이의 사고는 처음에는 감각에만 근거하여 추론 하지만, 점차 상상에 근거한 추상적인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아이들의 하루는 놀이로 시작해 놀이로 끝난다. 그러니 놀이는 중요하다. '잘' 놀아야 한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수단'인 놀이가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즐거운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의 발달 정도와 능력에 알맞은 놀이로 신체와 정서의 발달은 물론, 언어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성의 올바른 신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짐보리의 놀이 교육 프로그램이 꾀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놀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발달 정도에 알맞은 수준을 고려하고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계획이 모두 담겨져 있다. 다시 한 번 명심하자. 아이는 잘 놀아야 잘란다

아이 두뇌 발달에 관한 뜨거운 관심

놀이를 통한 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은 '짐보리 부모 교육 특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3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짐보리 부모 교육 특강' 역시 아이에게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리는 시간이었다.

'영유아 두뇌 발달과 놀이'를 주제로 한 제1부 특강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영유아 두뇌 개발 분야의 권위자인 김영훈 박사가 강단에 섰다. 김영훈 박사는 영유아의 뇌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우리 아이들의 뇌가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2부 특강에서는 한국 짐보리 놀이연구소 김혜련 소장이 'Play With Book'라는 주제로 놀이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었다. 책을 통한 다양한 놀이 교육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모들에게 실효성 높은 교육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놀이가 곧 성장이 된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자, 유아기에 필요한 전반적이며 조화로운 발달, 종합적인 학업적 기능을 성취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또한 놀이는 생존에 적절한 본능적 행위의 연습을 제공하게 되고, 삶의 연습으로서 커가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아이들에게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과도한 목표지향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해주는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여서는 안 된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의 발달 정도를 신장시켜주는 짐보리의 놀이 교육 프로그램이 그래서 더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It's New!
All Set!**

40여년 역사의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 짐보리가
대대적인 메이크 오버를 통해 한 단계 높이 도약했다.
에디터 김정아 사진 방지은

New Play Equipment

짐보리 클래스룸 중 플레이룸은 짐보리의 기구들로 채워진 공간이다. 짐보리의 놀이기구 및 보조물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수준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재질과 질감의 창의적인 기구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짐보리의 기구들이 더욱 좋아졌다. 유아용 기구만을 30년 넘게 연구 개발해온 세계적인 놀이 기구 디자이너 제이 백위스(Jay Beckwith)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것이다. 신기구는 다이내믹한 구조로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곳곳에 발달연령에 따라 활용 가능한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모든 기구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처럼 다양한 기능은 아이에게 복잡하고 혁신적인 놀이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블루 컬러의 짐타일(Gymtile) 바닥재가 플레이룸 전체에 사용되었다. 컬러가 주는 편안함 덕분에 긴장감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이같은 짐보리의 독창적이면서도 발달에 최적화된 놀이 공간은 아이가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놀이의 주체가 되어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고 놀이 세계로 몰입하도록 돕는다.

New Play Program

플레이 프로그램은 짐보리의 오랜 놀이 철학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다. 체계적인 놀이 시스템으로 연령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각 단계에서 특별히 계획된 기구활동을 통해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신기구의 도입으로 플레이 프로그램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나무, 철, 고무 등 여러 가지 재질의 기구와 짐타일 덕분에 더욱 역동적이고 다양한 신체 활동 가능해졌다.



It's New!

짐보리의 신기구와 새로운 플레이 프로그램을 갖춘 서초 짐보리는 아이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놀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부모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All Set!

기다림도 놀이처럼

서초 짐보리가 위치한 건물 2층에 도달하면 로비 정면에 보이는 안내 데스크 앞쪽에 위치한 자작나무와 이를 둘러싼 노트 형태의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아이들과 부모의 쉼터인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과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피톤치드가 상시로 분사되어 공간에 쾌적함을 더한다. 로비를 마주보고 오른쪽에는 커뮤니티 룸과 웨이팅 룸이 자리한다. 이 역시 모두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기다림에 취약한 아이들에게는 수업 전 후의 대기 시간은 곤욕. 이를 위해 웨이팅 룸은 아이들이 언제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두어 꾸였고 커뮤니티 룸은 엄마 혹은 짐보리 선생님과 간단한 활동도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그래서 커뮤니티룸에서는 때때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확실한 검증으로 예견된 효과

최신의 시설에 최선의 기구와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서초 짐보리는 짐보리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곳이다. 김범주 원장은 서초 짐보리는 짐보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센터를 꾸려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서초 짐보리에서의 확실한 검증을 통해 세팅된 짐보리의 신기구와 새로운 플레이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짐보리 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놀이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부모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서초 짐보리

신기구와 새로운 플레이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짐보리 본사 직영점인 반포 센트럴시티 짐보리. 1992년부터 한국 최초의 짐보리이자 전초기지로 운영되던 센트럴시티 짐보리가 13년 후인 2015년 4월, 반포동 반포골프백화점 2층으로 거처를 옮겨 다시 오픈한 것이 서초 짐보리다. 그밖의 짐보리의 새로운 시도들도 언제나 짐보리 직영점을 통해 시도된다. 새로운 구조와 시설, 새로운 프로그램의 선 시행 및 확정 후 전국 센터로 세팅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기별 신입교사 교육과 프로그램 레노베이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넓고 쾌적하게

서초 짐보리는 이전을 통해 더욱 넓고 탁 트인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실내답지 않은 높은 천장이 시원한 느낌을 선사한다. 서초 짐보리 김다연 교사가 여기에 덧붙인다. “창이 커서 채광이 좋고 넓은 공간 덕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 보기에든 무리가 없습니다. 좋은 공간은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편 서초 짐보리의 길게 뻗은 복도 사이로는 플레이룸 1, 2와 뮤직, 아트, 맥포머스까지 총 5개의 클래스 룸이 배치되어 있다. 공간적인 여유덕에 2개의 플레이룸과 맥포머스를 프로그램을 위한 단독 공간인 맥포머스 룸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 한편, 복도 양 벽면에는 짐보리의 대표적인 이미지과 프로그램 중 촬영된 사진들을 크고 작은 액자 모양으로 꾸며 재미를 더했다.



집에서도 짐보리랑 놀자~

짐보리 놀이교구의 가장 큰 장점은 교구 하나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음을 참고해보자.

에디터 류한우 도움말 한국짐보리 교육연구소장 김혜련



짐보리 낙하산

선명한 색감과 매끄러운 재질의 낙하산은 아이의 시각과 촉각을 자극시켜준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낙하산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 사회성과 협동심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낙하산으로 썰매를 타자 | 출생~18개월

낙하산 위에 아이를 눕히거나 앉히고 부드럽게 끌어준다. 움직이는 낙하산 위에서 아이는 스스로 균형감각을 익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낙하산을 낮은 위치에서 잡고 천천히 끌어주어야 한다는 것. 자칫 앉아있던 아이가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피크닉 놀이 | 18개월~36개월

짐보리 낙하산을 넓게 펼치면 피크닉 매트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바닥에 펼친 피크닉 매트에서는 아이와 함께 색깔 찾기 놀이를 할 수 있다. "빨강은 어디 있나 요기" 하고 노래를 부르며 함께 색깔을 찾는 놀이는 아이의 집중력까지 높여준다.

낙하산 텐트 | 36개월~60개월

빨래 건조대 위에 낙하산을 덮어 텐트를 만들어보자. 어른이 보기에도 제법 아늑한 텐트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거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손전등을 켜주면 분위기까지 완성!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다.



짐맥25 액세서리 세트

막대Bar와 공Ball으로 이뤄진 기본 구성물에 프로펠러와 바퀴, 로켓의 날개 등을 더한 짐맥 25 액세서리 세트. 단순한 조립의 이상의 활동적인 놀이가 가능하다.

구슬을 굴러볼까? | 출생~18개월

먼저 짐맥의 막대와 구슬로 구조물을 만들고 경사로를 연결한다. 구슬을 굴릴 땐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굴릴 것. 여러 가지 색깔의 구슬이 굴러가는 모습은 아이의 시각 추적능력을 키워준다. "떼구르르~ 떼쿨떼쿨~"과 같은 '음향 효과'로 아이가 더욱 흥미를 느끼도록 해보자.

상자 안에 쏙! | 18개월~36개월

구슬과 막대를 이어 육면체를 만들어보자. 이때 패널을 끼우면 훨씬 견고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 완성한 상자에는 아이와 함께 수를 세며 짐맥 구슬을 넣어보고 꺼내보자. 아이는 입체 구조물을 만들며 도형의 개념을, 구슬을 세면서 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로켓을 타고 우주로! | 36개월~60개월

짐맥에 날개와 프로펠러를 부착하면 로켓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액세서리로 우주 정거장과 인공위성까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무한대로 자라날 것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 추천하는 아이템과 놀이 외에도 짐보리 교구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짐보리 숍 www.gymboreesho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아이 위생관리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로 시끄러울 때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내 아이의 안전이다. 다시금 위생에 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할 때, 내 아이를 위해 부모가 반드시 갖춰야 할 위생관리법을 알아보자.

에디터 류한우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올바른 손 씻기>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우리아이 평생 치아 건강> 나나에 구라지, 영진미디어,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 권지형,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세 살 치아 여든까지!

신생아의 구강은 무균 상태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구강 내에 침입하고 점차 자리를 잡게 된다. 아이의 평생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평생의 충치를 결정하는 시기인 18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는 칫솔질은 물론 양육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모가 음식을 씹어서 혹은 먹던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먹이기는 금해야겠다. 물론 아이의 입이 닿는 숟가락이나 우유병 젓꼭지는 자주 소독해줘야 한다. 부모는 충치를 일으키는 유탄스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하는 자일리톨 껌이나 양치용액을 사용하길 권한다. 30개월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구강위생 교육을 시키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손 씻기의 힘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은 공기를 통해 코나 입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는 손이다. 이는 우리 두 손이 다양한 것들을 직접 접촉하는 신체부위이기 때문.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메르스 공포에 온 나라가 휘청일 때 전문가들이 권한 가장 좋은 예방법이 손 씻기였다. 따라서 손 씻기만 잘 해도 각종 전염병 위험은 물론, 요충과 같은 기생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손을 씻을 때는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한다. 손가락 끝과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고 흐르는 물로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세균의 99.8%를 제거할 수 있다.



애완 동물이 고민?

아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진다고 한다. 또한 만3세를 전후로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반려동물은 아이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부모는 반려동물과 뽀뽀하거나 음식을 나눠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는 금방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의 털은 매일 빗겨 털이 날리지 않게 하고 카펫이나 패브릭 소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과유불급의 묘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다. 살균 역시 그러하다. '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 '상재균'이라 하는, 우리 신체 내부에서 질병의 원인균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균도 있다. 따라서 지나친 살균 행위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되려 면역력이 약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살균제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는 과신은 절대 금물이다. 과거 잘못된 가슴기 살균제로 간질성 폐렴 등의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뉴스에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기본에 충실한 위생관리에 신경 쓰되, '오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이를 씻기고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기본'만큼은 항상 지키도록 하자.



주사는 좋은 거야~

예방접종만큼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충분한 면역력 확보를 위해서는 나라가 제시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기를 권한다. 접종 횟수가 많고 귀찮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꼼꼼히 챙기도록 한다. 특히나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홍역 예방접종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아주 드물게 이상반응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접종 후 20~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자.

질병관리본부의 표준 예방접종 일정

	대상전염병	백신종류및방법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5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4세	만5세	만11세	만12세	
국가 예방접종	결핵	BCG(피내용)	1차														
	B형간염	HepB	1차	2차			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Tdap			1차	2차	3차			추4차				추5차		추6차	
	폴리오	IPV			1차	2차	3차							추4차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RP-T/HbOC			1차	2차	3차		추4차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PPSV(다당질)			1차	2차	3차		추4차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차						2차		
	수두	Var							1회								
	A형간염	HepA												1~2차			
	일본뇌염	JE(사백신) JE(생백신)												1~3차		추4차	추5차
	인플루엔자	Flu(사백신)												매년접종			
		Flu(생백신)												매년접종			
	기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BCG(경피용)	1회													
인플루엔자		RV1(로타리크스)			1차	2차											
		RV5(로타텍)			1차	2차	3차										
인플루엔자	HPV4(가다실) /HPV2(서바릭스)														1~3차		

가족 여행은 사랑하는 가족과 흥미로운 세계를 구경하는 것 이외에도 며칠 간 꼬박 붙어있을 수 있기에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부부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에게 평생 가지고 갈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면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하기 마련. 아이의 관심사, 우리 가족의 성향, 음식과 구경거리 하나도 세심하게 챙기는 센스 있는 부모가 되어보자.

우리 가족 여행 계획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큰 존재이며 가끔은 세상의 전부다. 아이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여행, 어디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에디터 이은빈 참고도서 <우리 아이 첫 해외여행>, 일라이치코리아, 전혜원, <박물관 여행 101>, 어바웃어북, 김지혜

아이와 여행 전 할 일

1 버킷 리스트 작성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해보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아빠와 별을 보는 것', '공룡을 보는 것' 등 소소하고 감쪽한 리스트가 쏟아질 것이다. 행복은 기본, 아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버킷 리스트의 목적이다. 일정을 짜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추가해 만족도를 높여보자.

2 함께 하는 사전 조사

여행지를 정했다면 갈 곳에 대해 함께 조사해보는 것도 여행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 미리 예약해 둔 숙소를 중심으로 동선을 짜고

식단을 짜다 보면 아이는 물론 부모 역시 즐거운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는 작은 수첩에 직접 쓰는 것을, 부모는 구글 맵을 활용해 갈 곳을 미리 체크해주는 것을 추천한다.

3 여행 짐 챙기기

옷을 스스로 입을 정도의 나이라면 직접 짐을 싸보게 하는 것도 좋다. 며칠간 어떤 곳을 여행할 지 충분히 이야기한 후 그에 맞춰 사용할 물건들을 챙겨보는 것이다. 짐을 챙긴 후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함께 빼고,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김으로써 아이는 여행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다.



연령 별 여행지 추천

0~12개월 호텔여행

아직 돌이 되지 않은 아이와 여행을 하는 것은 설렘보다는 긴장되는 일이다. 되도록이면 안전하고 가까우며 응급 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6개월 이하의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국내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호텔에서 여행 기분을 만끽해보자.

추천 여행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면서 휴식과 유아 돌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제주 신라호텔은 유모차, 침대 가드, 유아용 이불, 연령별 아기 베개, 유아용 욕조를 대여할 수 있어 아기가 있는 부부에게는 안성맞춤. 다만 성수기에는 대여가 힘들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13~24개월 기차여행

아빠와의 스킨십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아빠가 운전을 하는 대신, 아이와 나란히 앉거나 안고 창 밖을 함께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탈 것에 관심을 한창 가지는 이 시기에 크고 덜컹거리는 기차는 그 자체로도 호기심 대상이다. KTX를 예매할 때 유아동반을 선택하면 일반 요금의 7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KTX는 8호차, KTX 산천은 4호차가 유아동반객실이므로 꼭 기억해두자.

추천 여행지 엄마, 아빠의 추억이 담겨있는 여행지라면 더욱 특별해질 것이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가 너무 많다면 인천, 수원, 춘천 등 당일여행이 가능한 서울 근교를 추천한다. <차 없이 떠나는 주말 여행 코스북> (도서출판 갈뱃)이라는 책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코스가 짜여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25~37개월 첫 해외여행

관찰력이 좋아지고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 아이에게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첫 해외 여행이니만큼 여권 발급은 기본, 비행 중 유아용품 대여하고 유아용 기내식, 항공사별 키즈 키트를 챙기는 것은 필수다. 인천 공항에서는 7세 미만 유, 소아나 임신부 등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추천 여행지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은 동남아시아를 추천한다. 대부분의 리조트에는 유아용 풀이 따로 있다. 따가운 햇볕과 염분이 짙은 바닷물에 아이의 피부가 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들에게는 세부를 추천하곤 하는데, 안전하고 먹을 거리가 풍부하며 비행 시간이 4시간 내외로 짧은 점을 그 이유로 꼽는다.

38~60개월 호기심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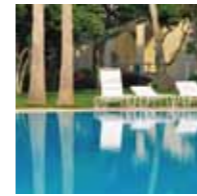
씩씩하게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나이. 특별한 놀이감을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놀 수 있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질서, 협동심, 책임감을 키우기에도 적절하므로 함께 텐트를 치고 직접 밥을 하는 캠핑 여행이 적절하다. 넓은 공터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으므로 신체 발달 및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에도 알맞다. 자연을 관찰하며 지식을 늘릴 수도 있고, 밤에는 별자리 공부를 하며 호기심을 충족할 수도 있다.

추천 여행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지오랜드 캠핑장은 소나무 숲 한 칸에 마련되어 있어 캠핑의 운치를 더욱 느낄 수 있다. 서바이벌 게임, ATV, 경비행기, 레저 카트, 도자기 체험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근처의 '네이처월드'에서는 연중 무휴로 '빛축제'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가는 캠핑장에서 500m 떨어져 있다. 예약은 레저토피아 지오랜드 홈페이지(vj114.com)에서 가능하다.

61개월~70개월 똑똑한 여행

아이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관심사도 뚜렷하고 분명해진다. 자연사, 지구, 역사, 예술 등 그 분야도 다양한데, 아이의 관심에 맞춰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지 특색을 살린 해양 박물관, 공룡 박물관, 화석 박물관 등 사전 정보를 수집해 코스를 짜보자.

추천 여행지 국내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고성군을 추천한다. 고성군 전역에 걸쳐 거의 모든 곳에서 약 5,000여 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기 때문. 특히 고성 공룡박물관에서는 실제 크기로 제작된 공룡 뼈 모형과 다양한 크기의 공룡 모형을 마음껏 볼 수 있다. 고성군 곳곳은 숲, 계곡, 폭포, 자연 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많아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기도 하다. 또한 고분과 고인돌, 탈 박물관과 거북선 체험관 등이 있어 역사 체험을 하기에 적당하다. 고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고성 홈페이지(visit.goseong.go.kr) 참고.



Family Style

패밀리룩 어드바이스

어렵지 않은 포인트 스타일링으로 가족 모두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생긴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패밀리룩이란 그런 것이다. 남들에게 뽐내기보다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한 옷 입기이다.

에디터 류한우 사진 방지은 스타일리스트 김묘정



시크한 가족을 위한 패밀리 리조트룩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춘 패밀리룩이 부담스럽다면 패턴을 기본으로 한 패밀리룩에 도전해보자. 누가 입어도 단정하고 시원한 인상을 주는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이 베스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부담도 적다. 구성원 중 일부에게 적당한 아이템이 없다면 컬러 정도만 맞춰주면 된다. 오히려 더 시크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빠를 위한 멜란지 스트라이프 니트 풀오버, 그레이 페도라, 네이비 테슬 로퍼 각각 6만9천원, 3만5천원, 12만9천원 모두 **지라**. 네이비 코튼 리넨 쇼트 팬츠 가격 미정 **브룩스브라더스**, 여자 아이가 입을 블루 데님 블라우스 7만5천원 **조엘**, 화이트팬츠와 슬림은 슈츠 각각 가격 미정, 9만원 **바바라**, 엄마를 위한 네이비 스트라이프 패턴 원피스 20만원대 **빈플레이디스**, 베이지 웨지힐 가격 미정 **나인웨스트**, 스틸 뱅글 가격 미정 **지라**.

유니크한 실버 슈즈

반짝이는 은빛 신발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단 하나면 된다. 흔하지 않은 아이템인 만큼 유니크한 패밀리룩 연출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재귀반사 소재로 만든 그레이 스니커즈 가격 미정 **푸마**, 지퍼가 달린 여성용 실버 스니커즈 가격 미정 **랜드로바**, 여자 아이를 위한 실버 스니커즈 9만원대 **바바라키즈**.



컬러로 말해주는 포인트 아이템

여럿이서 옷을 맞춰 입을 때는 컬러나 패턴을 맞추는 스타일링이 가장 쉽다. 패밀리룩 역시 이 기본을 따른다. 상의가 되어도 좋고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 아이템이 되어도 좋다. 하나만 맞추자.

어디서든 눈에 띈다!

스포츠웨어의 밝은 색감은 패밀리룩 연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바깥 활동을 즐기는 가족이라면 경쾌한 컬러의 아우터로 시선을 모아보자.

후드가 달린 남성용 오렌지 컬러 윈드브레이커 7만9천원 **케이웨이**, 오렌지 컬러 여성용 윈드브레이커 16만원대 **라푸마**, 아이를 위한 오렌지 컬러 윈드브레이커 8만9천원 **베네통키즈**.



아기자기한 포인트 아이템

잘 맞춰 입고서도 어딘가 허전하다면 작은 액세서리를 더해보자.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 아이템을 포인트로 매치했다면 반드시 함께 손을 잡고 '기념샷'을 남길 것!

투명한 블루 컬러 스포츠 워치 18만원 **카시오**, 앙증맞은 사이즈의 블루 컬러 젤리밴드 워치 9만원 **아이스워치**.

우리는 프린트로 통해요

난해한 프린트라 해도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라면 패밀리룩 아이템이 될 수 있다. 계절감을 고려하여 플라워 프린트나 트로피컬 프린트를 선택해줘도 좋겠다.

블루 톤 트로피컬 프린트 스냅백 캡 4만5천원 **햇츠온**, 검은색 트로피컬 프린트 트러커 캡 2만5천원 **반스**.





에너지틱 패밀리를 위한 아웃도어 패밀리룩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모든 옷 입기의 기본. 캠핑을 비롯한 바깥 활동을 즐기는 가족이라면 한번쯤 아웃도어 패밀리룩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캠핑장에서의 패밀리룩은 가족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할뿐더러 한 팀이 된 듯한 기분까지 들게 해줄 것이다. 경쾌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밝은 컬러를 중심으로 맞춰보자.

아빠를 위한 카키 컬러 아웃도어 베스트와 화이트 티셔츠 15만9천원, 11만8천원 **네파**, 오렌지 컬러 아웃도어 팬츠 13만9천원 **잭올프스킨**, 모자와 등산화 각각 가격미정, 13만9천원 **리푸마**, 아이를 위한 옐로우 점퍼와 화이트 카고 팬츠, 하늘색 캐릭터 모자 각각 16만8천원, 7만3천원, 4만8천원 모두 **새르반**, 화이트 티셔츠 가격 미정 **조엘**, 레인부츠 4만9천원 **스케처스**, 엄마를 위한 플라워 프린트 윈드브레이커 17만원 **리푸마**, 화이트 티셔츠 11만8천원 **잭올프스킨**, 옐로우 팬츠 가격 미정 **코오롱스포츠**, 등산화 13만9천원 **리푸마**.



도심지 나들이에 알맞아요

친지나 지인의 특별한 초대에 응하는 날 포멀한 차림새가 필요하다면 아빠는 시원한 린넨 셔츠를, 엄마와 딸아이는 같은 컬러의 원피스 차림이면 어떨까?

마르셀라 컬러 남성용 린넨 셔츠 14만9천원 **라타**, 버건디 컬러 품이 넓은 원피스 드레스 가격 미정 **플앤엘리스**, 어깨선과 네크라인의 셔링으로 귀여움을 더한 자주색 코튼 원피스 9만5천원 **조엘**.

화이트 포인트 슈즈

부드럽고 유연성이 뛰어난 EVA(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소재로 만든 신발은 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비 내리는 날 아이와 함께 신어보자.

토 캡 디자인을 더한 여성용 EVA 슈즈 8만9천원, 연령대 구분 없이 가볍고 편하게 신기 좋은 화이트 EVA 슈즈 4만9천원 모두 **네이티브**.



그날의 상황에 맞는 포인트 아이템

모든 스타일링의 기본은 상황에 적절한 옷차림이어야 한다는 점. 단순히 스타일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아이템 매치라면 더욱 센스 있는 패밀리룩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시력도 지키고 스타일도 살리고!

가족 모두의 선글라스 컬러를 통일해도 좋지만 성별에 따라 컬러를 나누어도 재미 있을 것이다. 다만 아이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검증된 렌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위에서부터) 아동용 블루 프레임 선글라스 7만원, 반투명 블루 프레임 미러 렌즈 선글라스 10만원, 반투명 핑크 프레임 선글라스 10만원, 핫핑크 프레임 선글라스 7만원 모두 **플라로이드 by 사필로**.

더욱 신나는 물놀이 시간!

총천연색 수영복이 모이는 공간에서 포인트 컬러까지 갖춘 수영복은 누가 봐도 한 눈에 가족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친 물살에도 끄덕 없는 어린이 전신 수영복 13만9천원 **새르반**, 오렌지 컬러 포인트 블루 비키니 세트 8만9천원 **카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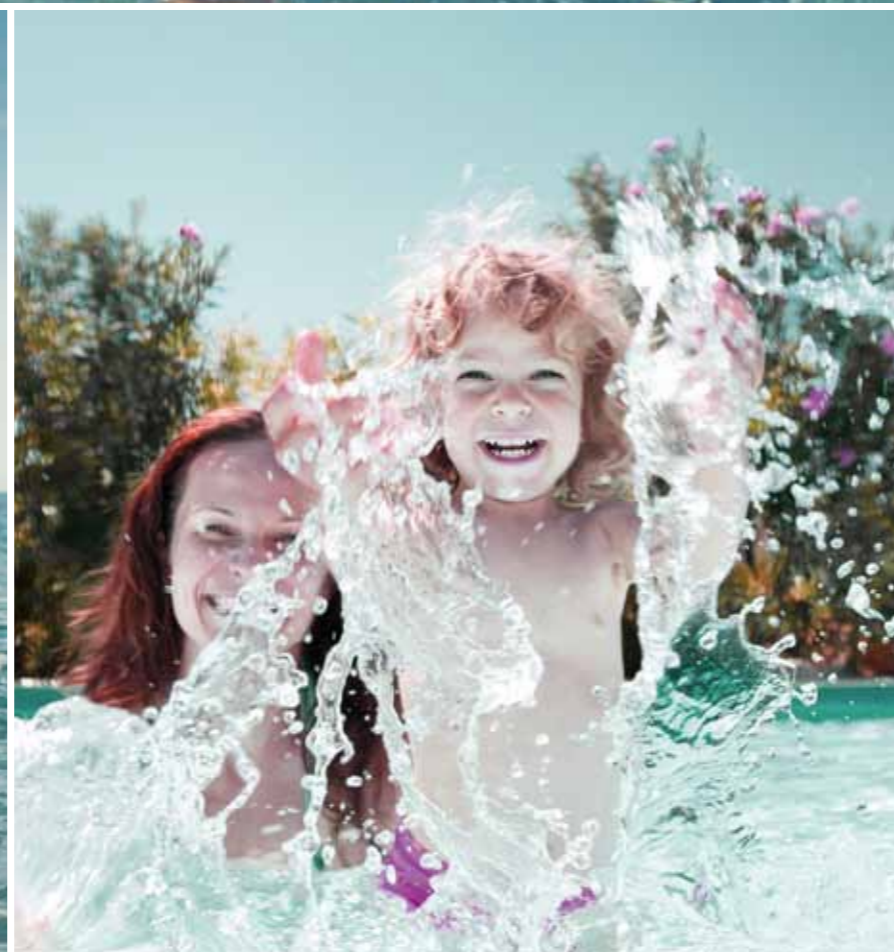




물놀이의 정석

물은 더위와 함께 스트레스까지 씻어준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물놀이는
 온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줄 것이다.

에디터 이종한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안전장비를 준비하자. 아이들에겐 반드시
 구명조끼나 튜브를 걸쳐주자.

물놀이 공통 영역

식사 후의 나른함은 근육 기능의 저하와도
 관계가 있다. 소화 운동을 위해 근육으로
 가는 혈액까지 위장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물에 들어가면 피부 아래의
 모세혈관이 수축되므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소화 불량이
 되는 것이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입수를 피하도록 한다. 체하는 정도에서
 문제가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완된
 근육이 찬물을 만나 갑자기 수축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근육 경련과 쥐가 나는 게 이런
 경우다. 해결책은 근육을 미리 풀어주거나
 찬물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두 가지다.
 스트레칭 등의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심장에서 먼 팔다리부터 가슴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물에 적셔주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안전장비를 준비하자. 아이들에겐 반드시
 구명조끼나 튜브를 걸쳐주자.

물놀이 수영장 영역

워터파크나 수영장은 통제되는 공간이라 아이
 부모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에
 신경을 써도 물에 젖으면 마찰력이 줄어드는
 과학적 원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바닥이 젖은
 곳에선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자. 맨발보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기도록 한다. 수영장에서선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를 끼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입수하는 수영장 물은 별로 깨끗하지
 않다. 긴급적이면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는
 게 좋다. 수영장의 물을 빼던 한 동물원에서
 배수구에 새끼 하마가 끌려들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수조의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압력은 상상 이상이다. 배수구
 주변에서 노는 건 피하도록 하고, 배수구의
 구멍에 아이의 손발이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쓴다.

물놀이 계곡 영역

계곡은 바다처럼 넓지도 않고 수영장처럼
 통제되지도 않는다. 폭우가 쏟아지면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물살도 거세진다. 작은
 비에도 계곡 물은 쉽게 표정을 바꾼다. 계곡에
 갈 때는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오는
 날은 피하자. 계곡은 몇 미터만 지나도 수심과
 물살이 천차만별이다. 폭이 좁아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도록
 한다. 물가 바로 옆에 텐트를 치는 건 위험하다.
 자다가 소나기라도 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에서 조금 벗어나고
 편평한 고지대에 텐트를 치자.
 계곡의 바닥은 대부분 돌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의 자갈이 날카롭지 않은 곳을 찾는다.
 아이가 발로 밟거나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또, 바위에 이끼가 끼서 미끄러운
 곳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이곳이 바로 물놀이 명당 언제나 중요한 건 때와 장소다!

한강 수영장 · 물놀이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한강
 수영장 · 물놀이장은 여름에 저렴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당. 독섬,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 지구의 6개 수영장과 난지
 지구의 물놀이장이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홈페이지(www.seoul.go.kr/event/hanriver)에
 접속하면 개장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근교 계곡

서울과 경기도에 산이 흔하다보니 계곡도 많다.
 은평구 진관동의 북한산 계곡, 북한산과 도봉산이
 만나는 우이동 계곡은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봉산의 문사동계곡, 망월사계곡(원도봉계곡),
 보문사계곡(무수굴)은 등산로의 산행 기점이기도
 하다. 남쪽으로 관악산 삼막사 계곡도 가족 물놀이
 장소로 그만이다. 가평, 안양, 양주, 양평, 용인,
 의정부, 적성, 포천에도 좋은 계곡이 많다.

분수대 물놀이장

하루를 꼬박 투자하기 버겁다면 분수대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곳에 잠시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정수를 딸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물빛광장은 무료 깊이의 물놀이장을 갖추고, 분수
 쇼까지 제공한다. 강북구 번동의 북서울 꿈의 숲도
 물놀이 장소를 다수 갖추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추천하는 명소다.



화보처럼 찍는다



“지금 딱 이었는데...!” 아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진정 포착하길 원했던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다. 연출이라도 해보자니 아이가 카메라를 의식해 움직여줄 리도 없다. 우리 아이의 예쁜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부모들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전한다. 조언은 다음과 같다.

에디터 김정아 도움말 포토그래퍼 채우룡(몽키랩 스튜디오)



1 카메라 세팅은 이렇게
표정 위주의 사진은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배경을 아웃 포커스 하면 인물이 좀더 집중이 되어 효과적이다. 동작이 있거나 자연스럽게 뛰어 노는 모습은 셔터 속도를 가능한 최대로 높여 촬영하면 순간 포착이 가능하다.



2 자연스러운 모습이 예쁘다
연출한 듯한 모습보다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잡아낸 사진이 더 매력적이다.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아도 좋다.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 등을 자연스럽게 파파라치 컷으로 찍어보자. 꾸밈새에 지나치게 공들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가장 우리 아이를 잘 아는 만큼 부모가 보기에 잘 어울리는 의상과 헤어 정도로도 충분히 예쁘다.

3 배경은 단순하게
배경이 너무 복잡하면 사진이 분산된다. 간단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인형이나 색채감이 있는 소품들을 함께하는 정도가 좋다.



4 익숙해야 통한다
아이는 아이다. 산만하고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에는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소품이나 음식 등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5 자르지 말라
어정쩡한 크롭은 사진을 망친다. 예를 들어 정강이 즙음에서 사진을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신이라면 발까지 다 나오게 할 것. 클로즈업이라면 헤어까지 나오게 하거나 눈썹 위는 과감히 자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6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의상이나 액세서리로 차별화 하는 것이 여럿 중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다.



7 여름의 태양을 적극 활용
여름철의 가장 좋은 조명은 짙은 햇빛이다. 한낮의 밝은 태양을 이용해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남길 기회다.



8 독특한 분위기 연출
역광으로 찍어보라. '하이키 사진'이라고도 하는데, 역광으로 아주 밝게 찍으면 배경의 빛이 넘어와 디테일이 사라지는 대신 '뽀샤시'한 사진이 나온다.

9 콘트라스트로 분위기 업!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안다면 대비 효과만 주어도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 보인다. 콘트라스트(단축키 ctrl+m) 그래프를 S자 모양으로 만들면 선명하고 짙은 느낌이 완성된다. 그래프를 이리저리 만져 원하는 톤의 사진을 만들어 봐도 좋다.



10 손 닿는 곳에 카메라를 둔다
그렇지만 기억하자. 항상 자신의 근처에 카메라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의 표정이 좋을 때 카메라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

아이를 위한 여름철 입맛 회복 레시피

보양식의 재료는 뻘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맛 회복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에디터 이중한



★ 조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민어는 한때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불렸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조선 민어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일제시대에 민어가 품귀해졌다. (동의보감)은 민어를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한 생선이라고 했다. 아이들의 입맛도 거슬리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고 성장발육을 촉진하는 데 적합하다.

민어 어알탕

간단하게 꾸며본
조선 스타일 보양식!

재료 민어 살 150g, 작은 감자 1개, 고구마 1개, 달걀 1개, 찹쌀가루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전분 약간, 국간장 2작은술, 다시마

How to Cook

1 손질한 민어 살, 다진 감자를 소금으로 간한 후 달걀물과 함께 믹서로 간다. 대파 흰 부분을 손가락 한 마디 만큼 갈아서 넣으면 잡내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2 1에 찹쌀가루 1작은술을 넣고 치면 후 완자를 빚는다. 찬물에 적셨다 빼길 3~4회 하면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다. 3 완자를 25분간 찌낸다. 4 500cc 정도의 육수를 낸다. 닭고기 영양밥의 다시마물을 참고한다. 육수가 펄펄 끓으면 완자를 넣고 끓인다. 고기국물을 좋아하면 양지 삶은 육수를 사용해도 좋다. 5 깍뚝썰기 한 당근과 호박을 넣고, 다진마늘과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6 다른 환삼 생선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도미는 민어와 다른 깔끔한 맛을 내기 때문에 궁중에서 보양식에 많이 사용했다.



★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높은 닭고기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양식 재료다. 닭고기는 생선과 함께 '흰 고기'로 불리지만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은 다리는 '붉은 고기'에 가깝다. 지방 함량 등 부위에 따라 닭고기도 천의 얼굴을 하고 있다.

닭고기 영양밥

아이들은 인삼보다 고구마 향을!

재료 닭 가슴살 60g, 고구마 1개, 버섯, 불린 쌀 2공기, 물, 다시마

How to Cook

1 다시마 1장을 우려서 육수를 내서 식힌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물 1리터에 작은 다시마 1장을 넣고 8시간 놔둬도 된다. 2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고 1cm 크기로 깍뚝 썬다. 3 버섯과 닭고기도 작게 썬다. 표고버섯 밑등은 잘게 다져야 아이들이 질겨 하지 않는다. 건표고를 사용한다면 다시마를 대신 버섯 불린 물을 육수로 써도 좋다. 4 1의 육수와 2, 3의 재료를 넣고 밥을 올린다. 5 양조간장 10큰술, 물 4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다진파 1큰술, 참기름 3큰술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6 닭고기 영양밥과 양념장을 낸다.

★ 장어는 언제나 여름 보양식의 으뜸으로 꼽힌다. 눈에 좋은 비타민A는 쇠고기의 200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피부에 좋아 최중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D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불포화지방산과 DHA, EPA 함량도 높아 아이와 청소년의 기억 회복과 두뇌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구합이 나쁜 복숭아를 후식으로 내는 건 금물이니 주의하자.

탕수장어

여름 보양식의 왕, 장어!

재료 장어 2마리, 마늘, 버섯, 당근, 양파, 간장 2큰술, 굴소스 2큰술, 설탕이나 울리고당(1큰술 정도), 녹말, 튀김가루, 물

How to Cook

1 재료를 손질해둔다. 장어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튀김가루를 바르고, 야채는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얇고 작게 썬다. 2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는다.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써도 좋다. 3 당근과 버섯을 볶다가 양파를 넣는다. 단단한 재료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간장과 굴소스를 붓는다. 버섯은 표고나 양송이, 목이 모두 좋다.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 4 당근이 젓가락에 잘 뚫릴 정도로 익으면 물과 녹말의 혼합액을 넣는다. 비율은 3:1이다. 5 4의 혼합액에 설탕을 괴어도 좋고, 울리고당으로 단맛을 내도 좋다. 탕수소스에 단맛을 내는 재료를 넣어 줄인다. 6 장어를 튀긴다. 7 곱썬 튀김가루를 튀겨 탕수소스와 장어를 함께 낸다.



이유 있는 아이의 집착

유형별 대처법

몰래 빨았다가는 난리 나는 냅마 같은 담요부터 틈만 나면 입 속에 들어가는 엄지손가락까지, 아이의 집착 대상은 다양각색이다. '저러다 말겠지, 아니 애정 결핍인가?' 혼란스럽다면 일리 있는 집착과 문제 행동을 구분하고 각각의 맞춤 대처법을 찾아보자.

글 김이경(아름아동심리발달연구소 연구실장)
에디터 류한우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집착은 존중해주기

아이의 집착은 대부분 잘 크고 있다는 신호이다. 아이는 엄마로부터 독립해 성장하려고 할 때 집착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보통 생후 18개월 전후, 아이는 걷고 뛰는 데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 엄마에게 슬슬 독립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다. 이때 부드러운 감촉과 익숙한 냄새가 뱀 이불이나 인형은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 대신 아이를 안심시켜준다. 엄마 젖을 빨 수 없는 대신 손가락을 빨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아이에 따라서는 돌 전후부터 이런 집착이 시작되기도 하고, 한참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가 독립 과정에서 집착을 보이는 대상은 '애착 대상'이나 '애착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의 애착 대상은 엄마도 함께 아껴주는 게 좋다. 엄마가 애착 대상을 귀하게 다루우면 아이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감정을 존중받겠다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형이나 이불은 위생을 위해 세탁해주되, 몰래 버리거나 새 것으로 바꿔놓지 않도록 한다. 손가락을 빨 때는 다른 놀이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좋다. 또 아이에게 매니큐어를 정성스럽게 발라주면서 너무 자주 빨면 예쁜 손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기 방식에 집착할 때는 고집 싸움 하지 않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려고 할 때 집착이 심해지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아이의 뇌가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치 수납장을 정리하듯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를 시도한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매번 똑같은 자리에 신발을 똑바로 놓으려 하거나 자기가 정한 순서대로 놀이를 하려고 한다. 특히 호기심이 왕성한 만 3세 전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곤 한다. 이때 엄마 눈에는 아이가 사소한 것에 매달리거나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번쯤 고집을 확실히 꺾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이와 기싸움에 돌입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서로 싸움이 잦아지면 관계가 나빠지면서 아이는 고집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엄마가 아이의 집착 방식 중 따라줄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 뒤, 건강이나 교육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아이를 존중해준다. 또 집착이 심해질 때는 짜증도 많아지는데, 아이가 몸을 충분히 움직이고 놀면서 기분을 전환하게 해준다.



애정 결핍으로 인한 집착은 애착 촉진 놀이

애착 문제로 정서적으로 허기를 느낄 때 아이가 집착하는 대상은 바로 엄마. 엄마가 없으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엄마만 눈에 보이면 칭얼거리거나 매달린다. 엄마에게 의존하려 하고 엄마가 아홉 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모질게 굴면 바로 '나쁜 엄마'라고 악을 쓴다. 아이가 이런 문제를 보인다면 애착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어릴수록 애착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은 재미있는 놀이, 특히 스킨십이 많은 놀이이다. 아이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 자리에 뽀뽀해주기, 얼굴과 손발에 로션 발라주며 마사지해주기, 아이를 가운데 두고 엄마 아빠가 포옹하는 샌드위치 포옹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한다. 또 매일 이렇게 놀아주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에 20~30초간 눈 맞춤 하기, 10분 놀이 시간 갖기처럼 엄마 상황에 맞는 놀이 방법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발달 문제로 인한 집착은 전문적인 평가부터

특히 자폐성 장애로 인한 집착의 경우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자극에 심하게 몰입한다. 예를 들어 선풍기나 환풍기, 팽이처럼 빙빙 돌아가는 물건, 자동차 바퀴 굴리기, 자동차를 일렬로 주차시키기, 특정한 색깔 등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자연스러운 집착과 발달 문제로 인한 집착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아이의 사회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아이가 눈 맞춤이나 상호작용, 언어발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또 엄마가 놀이나 다른 흥밋거리로 주의를 끌었을 때 집착을 멈추고 함께 놀이가 가능한지도 살펴야 한다. 만일 이런 시도에도 계속 집착 대상에만 몰입한다면 발달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소아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 심리검사와 놀이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받고, 필요할 경우 놀이치료나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도 한다. 치료 과정에서 발달이 촉진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집착 정도도 줄어든다.

우리
같이



Play Program

짐보리의 'Play' 프로그램은 놀이로 아이의 발달을 도모하는 짐보리의 교육 철학을 대변한다. 'Play' 프로그램과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에디터 김경아 사진 방지은



놀이가 아이를 키운다

짐보리는 어린이들에게 바람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미국의 조안 반스(Joan Barnes) 여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Play' 프로그램은 짐보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조기교육, 교육심리, 아동발달 및 감각통합 이론, 기타 유아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 개발되었다. 아이는 짐보리가 제공하는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발달을 이끌어내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놀이하며 자신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

출생부터 초기 몇 년 동안은 빠른 성장 발달을 하게 되는 결정적 시기. 이 때 적절한 환경과 자극이 제공된다면 이후에 받게 될 훨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학습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발달을 부모들이 'Play'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짐보리의 목표다.

최고의 놀이 친구는 엄마

부모와 함께라는 짐보리 프로그램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훌륭한 놀이 친구가 된다.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와 경험들은 아이의 성장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짐보리는 이같은 결정적 시기에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기르고 긍정적인 부모와 자녀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계적으로 놀자

'Play' 프로그램은 세분화된 발달 단계별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발달 단계는 월령별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는 해당 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발달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감각 탐구, 의사소통, 문제 해결, 상징적 사고, 독립심 발달 등이 바로 그것. 아이는 발달에 최적화된 기구 활동을 하며 창의적인 놀이 세계로 몰입하게 되고, 즐거움을 넘어 놀이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짐보리는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관한 정보와 방법들까지 제공한다. 짐보리 밖에서는 부모가 올바른 교육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놀자

우리나라 놀이 교육의 역사는 곧 한국짐보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짐보리는 1992년 최초로 우리나라에 글로벌 짐보리의 선진 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우리나라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 아이의 정서와 발달에 맞게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놀이가 곧 학습이며 최고의 교육'이라는 철학을 수십 만의 부모와 아이들을 통해 입증해 오고 있다.

놀 수 있어 다행이야

짐보리는 40여 년에 걸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세계 50여 개국에 600여 센터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글로벌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에 걸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짐보리 교육의 효과를 증명한다. 점차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마저도 위험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짐보리이시실 부모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이자 자연스러운 발달까지 도모하는 짐보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Play Program

플레이 프로그램은 크게 Play, Preschooler, English Play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보다 세분화된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GYMBOREE Play

GYMBOREE Play 1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사려 깊은 관찰자
0~6months
아기의 감각 체계를 자극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부모 토의 시간을 통해 양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GYMBOREE Play 2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가
6~10months
부모, 또래와 함께 이야기, 기구 활동, 낙산 놀이 등을 통해 주변 세계를 탐색한다. 애착 발달과 초기 사회화를 경험하고 자신감을 키운다.

GYMBOREE Play 3

효과적인 상호 의사 소통가
10~16months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초기 걸음마와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부모와 함께하는 걷기와 균형감, 근력 강화활동은 신체 능력을 향상 시키면서도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노래 시간을 통해 언어 발달의 기초를 형성한다.

GYMBOREE Play 4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유능한 문제 해결가
16~22months
개념 별 주제에 따른 기구 활동과 언어 활동으로 놀이에 대한 집중력과 언어를 발달시킨다. 자신의 행동 순서와 패턴을

연습할 수 있는 운동 계획 능력도 발달된다.

GYMBOREE Play 5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와 상징을 사용하는 창의적 사상가
22~28months
주제와 연관된 그림카드를 보고 상징화된 스펠과 기구로 구성된 창의적 놀이 공간 속에서 초기 상상놀이를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공유

GYMBOREE Play 6

아이디어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정립하는 논리적 사상가
28~36months
상상놀이 활동을 탐색하며 주제와

연관된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연관시키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 시킨다.

GYMBOREE Play 7

사물, 사람,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독립적 탐험가
36~42months
다이나믹한 기구 활동과 오기를 통해 유연성과 집중력, 신체 조정 능력 발달, 그룹 게임, 부모 없이 진행되는 세퍼레이션 타임 등을 통해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움

GYMBOREE Preschooler

GYMBOREE Preschooler

사물, 사람,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독립적 탐험가
40~60months
2 시간 동안 부모 없이 또래와 함께 주제 관련 이야기 나누기, 감정표현 활동을 하면서 자기 표현력과 풍부한 감성을 키움. 그밖에 스포츠 타임, 아트 활동, 실험 등을 통해 호기심과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킴.

GYMBOREE Preschooler Sports

사물, 사람,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독립적 탐험가
40~60months
1시간 동안 하키, 골프, 축구, 야구와 같은 종목을 팀 활동과 게임으로 경험하며 또래와의 협동, 규칙,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킴.

GYMBOREE English Play

GYMBOREE English Play 5

The Emerging Creative Thinker
22~28months
주제와 연관된 그림 카드를 보며 영어로 표현되는 주제어와 상징어를 이해, 상징화된 스펠과 기구로 구성된 창의적 놀이 공간 속에서 초기 상상놀이를 경험.

GYMBOREE English Play 6

The Logical Thinker
28~36months
상상놀이 환경을 소개하고 놀이를 구체화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영어를 통해 활동을 연관시켜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발전.

GYMBOREE English Play 7

The Independent Explorer
36~42months
부모 참여 없이 구조화된 독립 공간에서 또래와 함께 영어 환경을 경험. 적극적으로 영어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내 아이는 3차원으로 사고한다

'3D 두뇌 트레이닝'이란 아이의 다양한 두뇌의 능력을 활용해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짐보리의 <맥포머스>는 3D 두뇌 트레이닝에 가장 효과적인 놀이교구다.

에디터 유혜인



맥포머스 - 3차원 두뇌 트레이닝

맥포머스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기하도형을 기반으로 구성돼 평면도형에서 입체도형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첫째. 이는 도형은 물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등 다양한 수학적 사고력의 발달을 돕는다. 다음으로 기본 구성 외에 바퀴, 파워블록, 엔진블록, 기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도형 내부의 자성체로 인해 평면에서 입체까지 어느 방향이든 360도 연결이 가능하기에 아이의 상상력 발달에 큰 영향을 도움을 준다는 점. 더불어 일반 완구에 사용되는 자석에 5배 강력한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했다는 점도 특징. 더 견고한 동시에 유럽과 미국, 한국의 품질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석교구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08년 국내 첫 런칭 이후 맥포머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32여 개국으로 수출되는 세계적인 교구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맥포머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맥포머스 스팀S.T.E.A.M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맥포머스 스팀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삼각아치 등 더욱 다양한 도형을 새롭게 추가해 더욱 디테일한 조형물을 완성할 수 있다. 맥포머스 스팀베이직과 스팀마스터로 나뉘며, 현재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짐보리에는 맥포머스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 짐보리의 맥포머스 프로그램은 30개월에서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3차원 입체 자석교구 맥포머스를 활용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맞는 조형 놀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맥포머스 프로그램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뉜다.

Gymboree Magformers Explorer | 30~44개월 대상
주제를 탐색하는 활동에서 시작해 주제를 표현하고, 창의적인 조형을 만들어내는 확장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해진다.

Gymboree Magformers Creator | 42~60개월 대상
부모 없이 친구와 함께 게임이나 협동 작업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발달할 수 있다.

Gymboree Magformers Inventor | 56개월~7세 대상
수학과 과학의 탐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부터 예술적인 영역까지 융합적인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맥포머스의 대표 아이템

수십여 가지의 다양한 맥포머스의 제품 중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네 가지의 제품을 만나보자.



1 맥포머스 스팀베이직

맥포머스 스팀베이직은 맥포머스 스팀 세트의 기본형이다. 5세 미만의 세밀한 조작이 어렵거나 기본도형 위주의 구성을 원하는 아이에게 권장한다. 도형 피스 위주로 구성되며, 비교적 조작이 쉬운 액세서리가 포함돼 어렵지 않게 가지고 놀 수 있다.



2 맥포머스 스팀마스터

맥포머스 스팀베이직의 확장판인 맥포머스 스팀마스터는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피스가 포함돼 아이가 스스로 각각의 움직임과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조형작업은 물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 다양한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3 마이퍼스트 맥포머스 30pcs, 54pcs(영유아용)

마이퍼스트 맥포머스는 생애 처음으로 맥포머스를 사용하는 영유아만을 위한 제품으로 30pcs와 54pcs로 구분된다. 영유아기 아이들을 위한 알록달록한 색감의 6가지 크레용 컬러로 구성된 아기들의 시각적인 자극을 돕는다.



4 맥포머스 파워사운드 세트

맥포머스 파워사운드 세트는 파워 사운드 블록에 내장된 7가지 음원과 재생 기능을 통해 조형물에 소리를 담을 수 있다. 함께 구성된 다양한 빛을 내는 파워 LED를 더하면 마치 조형물이 살아 숨쉬는 듯한 경험이 가능하다.



영어 말고 中國語?

'영어는 필수, 중국어는 선택'이라는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 영어와 중국어, 두 가지 모두를 필수로 교육시키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아이를 따라 우리아이에게도 무턱대고 교육을 시작해도 되는 것일까?

에디터 **이은빈**
 도움말 **정상현**(중국어 교육 전문가)



중국어가 '필수'화 된 후 그 부작용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중,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우리말이 아직 서툰 유치원생들까지 중국어를 거의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일찍 시작하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 아니다. '언어'라는 것의 특성상 일찍 접할수록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의 흥미와 적성, 언어에 대한 이해도와 관계없이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단언할 수 있다. 아이의 미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정한 교육일 테지만,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교육법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3~4세 유아에게 하는 언어 조기교육은 7세 때 언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한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부작용은 바로 말을 더듬는 것.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형체화 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토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토끼가 그려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너무 어린 시절 시작하는 조기 언어 교육은 이 과정에서 뇌에 무리를 주게 되어 '말 더듬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에게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해줘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적절한 시기, 적당한 교육을 받아 그 효과가 빛을 발하는 경우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중국어의 경우 이미 많은 기업에서 중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며, 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성공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시작해야 할까?

언어학자 촘스키는 '언어습득기제이론'을 주장하며 12세 이전의 아이들이 외국어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이후 시기에 오랜 기간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민을 간 부모보다 아이들이 외국어를 훨씬 잘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러너버그라는 학자는 생후 2세부터 사춘기까지가 언어획득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말한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이론들이다.

지문 정상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과 이화여대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국제중국어교육학과 졸업했다. 조선교육문화센터 주니어중국어지도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기획 및 강의 등 어린이 중국어 교육의 전문가로 <신나는 어린이 중국어 1~4>, <다락방의 저자이기도 하다.>

중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하는 아이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보통 6세를 전후로 시작하는데, 5세, 더 어리게는 4세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아이의 교육 시작 연령을 정할 때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옆집 아이가 한다고 해서, 중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자꾸만 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지금 당장!'이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실패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떤 목표로 교육해야 할까?

아이가 글자를 인지하고 글자와 사물을 매치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5세에는 아이가 중국어와 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유치원, 학원, 학습지, 인터넷 동영상 수업, 홈스쿨링 등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중국어 동요 책을 구입해 함께 노래하거나 아이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중국어 버전을 틀어주는 것도 좋다.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6세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국어는 4성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음이 특히 중요하다. 발음기호를 읽고 기초 문장이나 단어를 읽거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언어 습득이 빨라지는 7세부터는 중국어로 된 동화책을 활용해 조금씩 스스로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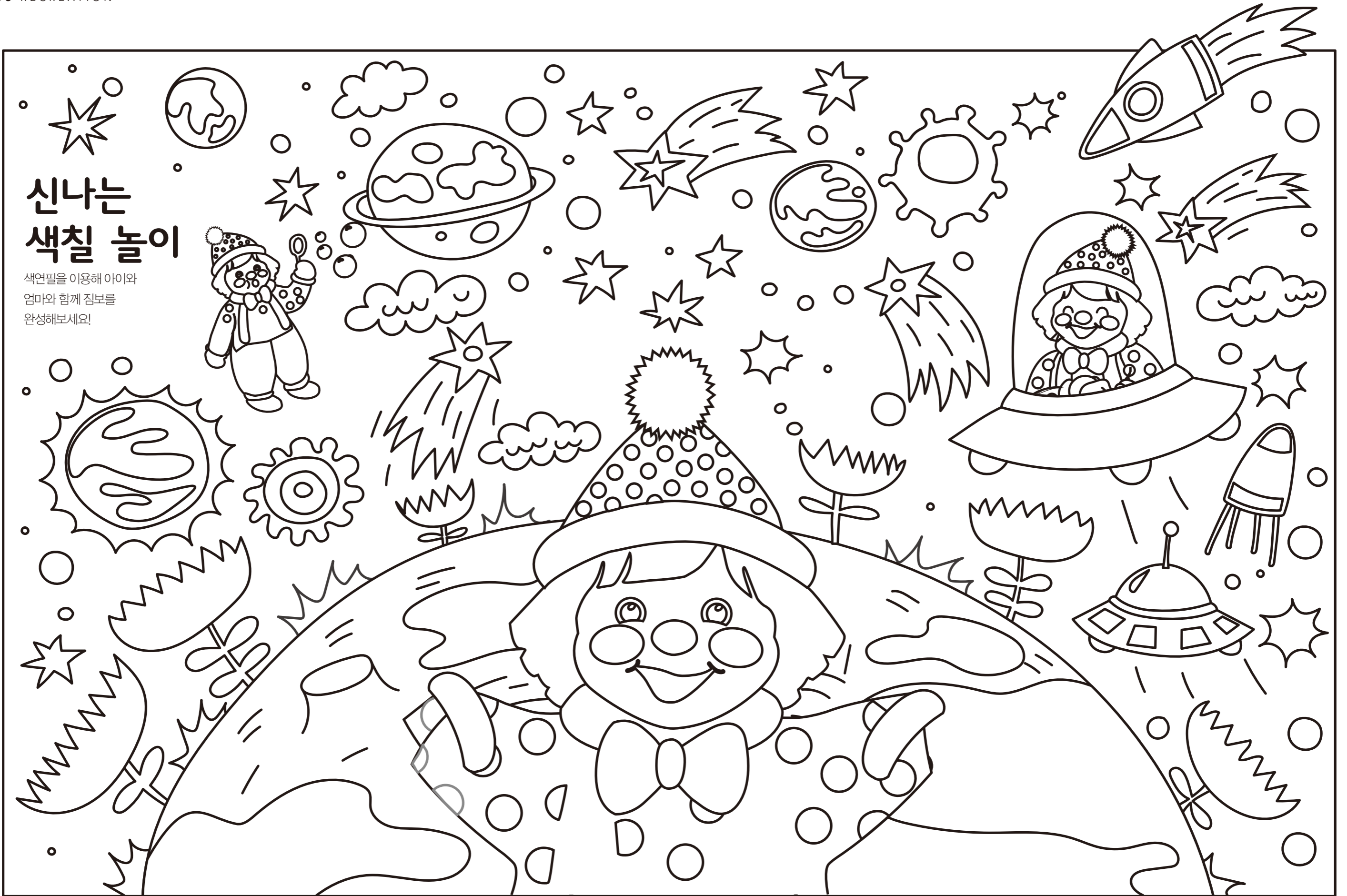
어떻게 가르칠까?

아이가 배고픔이나 졸음, 아픔,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 때 교육하도록 하자. 듣기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훈련을 시작하면 강세, 어조, 속도에 대해서도 체크해주어야 한다. 읽기 훈련을 할 동화책의 경우 아이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독음이 우리말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쉬운 것들로 시작한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30~4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놀이를 중간 중간에 활용 하는 것도 추천한다. 아이가 학습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해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잘 설명해 좌절하지 않도록 북돋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언어 습득이 빨라지는 7세부터는 중국어로 된 동화책을 활용해 조금씩 스스로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나는 색칠 놀이

색연필을 이용해 아이와
엄마와 함께 짐보를
완성해보세요!



짐보리 친구들



 * 이하나 강북도봉 짐보리	 * 장재민 강북도봉 짐보리	 * 길현민 강서 짐보리	 * 김소정 강서 짐보리	 * 백준서 강서 짐보리	 * 최윤영 강서 짐보리	 * 김동준 남구 짐보리
 * 박준영 남구 짐보리	 * 이나경 남구 짐보리	 * 김지아 노원 짐보리	 * 오채윤 노원 짐보리	 * 한시은 노원 짐보리	 * 김두현 동래금정 짐보리	 * 박서연 동래금정 짐보리
 * 서우영 동래금정 짐보리	 * 노종휘 롯데월드 짐보리	 * 박해진 롯데월드 짐보리	 * 고현승 보라매 짐보리	 * 김하준 보라매 짐보리	 * 신재준 보라매 짐보리	 * 조소영 보라매 짐보리
 * 조윤지 보라매 짐보리	 * 천정명 보라매 짐보리	 * 최선우 부천 짐보리	 * 한규정 부천 짐보리	 * 박송연 부평계양 짐보리	 * 김선우 분당정자 짐보리	 * 박세울 분당정자 짐보리
 * 송지우 분당정자 짐보리	 * 여지안 분당정자 짐보리	 * 임완수 분당정자 짐보리	 * 최예원 분당정자 짐보리	 * 박희수 사하 짐보리	 * 심유경 사하 짐보리	 * 이재원 사하 짐보리
 * 원유택 성북중로 짐보리	 * 박준서 성서 짐보리	 * 배규리 성서 짐보리	 * 유오현 성서 짐보리	 * 이현서 센트럴시티 짐보리	 * 한수연 수원 짐보리	 * 김찬우 순천광양 짐보리



Gymboree VIP 혜택

- 1 수업료 할인**
만 8학기 이상 짐보리 프로그램에 연속 등록한 Gymboree VIP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수업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Play&Learn, Music, Art, Global Kids, Magformers 수업료의 50% 할인
 - Preschooler 수업료의 20% 할인
 (할인 혜택은 연속 등록 9학기 째부터 적용됩니다.)
- 2 플레이짐 무료 이용**
만 5세까지 전국 어느 짐보리 센터에서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플레이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형제 등록 할인**
Gymboree VIP 회원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형제가 Play&Learn, Music, Art, Global Kids, Magformers에 등록하는 경우 수업료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단, Preschooler와 Gymboree Club 제외)

 * 김찬운 순천광양 짐보리	 * 김우중 안산 짐보리	 * 김재림 안산 짐보리	 * 김찬호 안산 짐보리	 * 조현서 울산남구 짐보리	 * 이유빈 은평 짐보리	 * 지태환 은평 짐보리
 * 홍지성 의정부 짐보리	 * 백지안 일산 짐보리	 * 김민지 천안아산 짐보리	 * 김시원 춘천 짐보리	 * 박인철 춘천 짐보리	 * 박현서 춘천 짐보리	 * 손지원 춘천 짐보리
 * 신민준 춘천 짐보리	 * 정민선 춘천 짐보리	 * 장재영 철곡동백 짐보리	 * 윤리완 평촌과천 짐보리	 * 장권영 평촌과천 짐보리	 * 현수민 포항 짐보리	 * 강신혁 프라자 짐보리
 * 김시훈 프라자 짐보리	 * 김채원 프라자 짐보리	 * 최현규 프라자 짐보리	 * 강하영 한남 짐보리	 * 김민영 화정 짐보리		

Gymboree Hot News

체계적인 놀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한국 짐보리는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시즌 부모님과 아이들의 마음을 달군 '핫'한 소식 여섯 가지!

에디터 유혜인



마포신촌 짐보리, KBS1 '엄마의 탄생'에 출연하다

KBS1 '엄마의 탄생'에 출연한 가수 강원래의 부인 김송과 아들 선이가 마포신촌 짐보리를 방문했다. 김송의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자녀들도 함께해 비누방울, 댄스 놀이 등 짐보리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립서울과학관에서 즐기는 맥포머스

국립서울과학관에서 과학의 날을 맞아 5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3차원 입체 지식교구 맥포머스를 전시한다. 다양한 맥포머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평소 맥포머스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맥포머스, 러시아 모스크바 햄리스 백화점에 입점하다

세계적인 유명 완구 브랜드 및 제품이 입점한 러시아 모스크바 햄리스 백화점에 맥포머스가 새롭게 진출했다. 맥포머스의 입점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라인과 로봇 조형물 등을 선보여 러시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놀이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 짐보리

한국 짐보리는 5월 28일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세계놀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아교구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세계놀이의 날은 놀이의 중요성과 아동의 놀 권리 위해 2002년부터 시작했다. 다양한 놀이행사가 진행됐다.



스마트한 소통을 위한 짐보리 전 센터에 키즈 노트 도입

한국 짐보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를 전 센터에 도입한다. 회원과 센터간의 더욱 원활한 소통은 물론, 고객의 편의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한국 짐보리

4월 27일 한국 짐보리는 푸르메재단을 방문해 유아교구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지역 장애인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 전달된 맥포머스 교구는 장애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정서 안정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 휴가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그랜드 서머 스플래시 패키지를 진행한다. 패키지는 Fun과 Full, 두 가지로 객실 1박은 및 짐보리 월드 등 놀이시설 이용과 더불어 물개 인형을 제공한다. 짐보리 회원은 멤버십 카드 제시 시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짐보리와 모두투어의 특별한 만남

짐보리 회원이라면 모두투어 특가 상품 패키지 외 모든 상품의 5% 할인이 제공되며, 결제금액 100만원 당 2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다. 여행 지역별로 특별한 선물도 주어지며, 해외 단체항공권 이용 시 여행 지역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전 세계와 함께하는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하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 등에서 제23회 <아시테지 국제 여름 축제>가 열린다. 짐보리 회원은 전석 20%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3인 이상 예매 시 30% 할인과 20인 이상 예매 시 50% 할인이 가능하다.

짐보리숍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현재 짐보리숍에서 가장 많이 선택 받는 놀이교구는 무엇일까요?



1위

짐보리 버블 기획세트 (비누방울세트 + 비누방울 리필액236ml)

꾸준히 사랑 받는 짐보리 버블이 짐보리숍 베스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허 받은 버블로 만드는 풍성한 비누방울은 아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검증 받은 안전성은 부모님을 안심하게 했습니다. 공기 중에 오래 머물고 잘 터지지 않아 더 사랑 받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2위



마이퍼스트 맥포머스

54p, 30p & 매직팝 세트 25p
18개월 이후 처음 접하는 생애 첫 맥포머스! 알록달록 크레용 컬러 맥포머스 시리즈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재미난 놀이시간을 가져보세요. 콘텐츠북이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퍼스트 시리즈를 확장한 3단변신 매직팝세트로도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위



짐보리 하모니카

음감이 발달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짐보리 하모니카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입을 대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다양한 음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인기입니다.

3위



NEW 봉봉카(소방차/경찰차)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특별해진 짐보리 봉봉카. 360도 회전하는 탁월한 핸들링과 본체 안쪽에 위치한 바퀴 설계로 발가락이 끼일 염려가 없습니다. 충간 소음 걱정도 없는 실내용 봉봉카입니다.

5위



짐보리 블럭컵

5개의 알록달록한 서로 크기가 다른 블럭컵으로 쌓기 놀이, 찌기 놀이, 담기 놀이 등 다양한 놀이가 가능합니다. 목욕이나 물놀이, 모래놀이를 할 때 활용해보세요.

